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 bisco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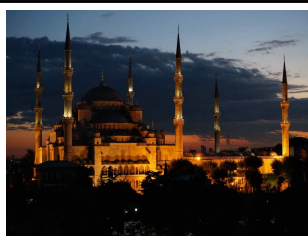
I

여행개요

- ☐ 여행기간 : 2013. 9. 3. ~ 9. 11.(9일간)
- ☐ 국 가 : 터키
- ☐ 견학시설 : 이스탄불의 세계문화유산 및 고대시대 유적, 자연 석회층 등
- ☐ 팀 인원 : 5명
- ☐ 주요내용
 -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터키 이스탄불의 다양하고 독창적 문화유적을 체험하여 소통과 공유의 인식 변화 추구
 - 터키의 고대 문화유적시설에 대한 보존 상태 등 견학
- ☐ 일 정
 - 제 1 일차 : 출국
 - 제 2 일차 : [이스탄불] 돌마바흐체궁전, 탁심광장, 이스티클랄거리
 - 제 3 일차 : 톱카프궁전, 아야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 사원
 - 제 4 일차 : [카파도키아] 괴레메 계곡
 - 제 5 일차 : 데린구유 지하도시, 으홀라라계곡, 셀리메 수도원, 벨리스트르마
 - 제 6 일차 : [파묵칼레] 히에라폴리스, 석회층
 - 제 7 일차 : [안탈리아]
 - 제 8 일차 : [안탈리아] → [이스탄불] 이동
 - 제 9 일차 : 입국



돌마바흐체 궁전



블루모스크 사원



아야소피아 박물관



히에라폴리스

II 국가 개요

- 국 가 명 : 터키 공화국(Republic of Turkey)
- 수 도 : 앙카라
- 면 적 : 783,562km²
- 인 구 : 8,694만명
- 민 족 : 터키인, 구르드인, 기타 등
- 종 교 : 이슬람교(99%_수니파)
- 언 어 : 터키어
- 국내총생산 : 8,172억 \$ (세계17위)
- 화폐 단위 : 터키 리라(TL)
- 위 치 : 유럽의 동남쪽, 아시아의 남서쪽 흑해연안
- 주요 산업 : 농업, 섬유, 광물성원료, 철강, 기계
- 정부 형태 :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 돌마바흐체 궁전

- 위치 : 이스탄불
- 개관시간 : 09:00 ~ 16:00(월요일 휴관)
- 특징
 - ▷ 오스만 제국 말기에 술탄왕이 거처했던 궁전으로 19세기 중반 술탄 압둘 메지드 1세에 의해 건립.
 - ▷ 돌마바흐체 궁전은 서구화로 쇠락해 가는 오스만 제국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전형적인 유럽식 건축물로서 내부를 장식하기 위하여 14톤의 금과 40톤의 은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화려함을 추구했음.
 - ▷ 내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탁심광장(이스티크랄 거리)

○ 위 치 : 이스탄불

○ 특 징

- ▷ 탁심은 신시가지의 중심이며, 상업과 쇼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광장으로 과거 정치적 모임과 시위가 벌어졌던 곳.
- ▷ 광장중앙에는 12m에 이르는 공화국 기념비는 1928년 이탈리아 건축가 피에트로 카노니카가 만든 것으로 터키 독립전쟁과 공화국 탄생을 기념하고 있음.
- ▷ 또한 광장 남쪽으로 이어져 있는 이스티크랄 거리는 탁심광장과 함께 현대 터키를 대변하는 곳으로 한국의 명동에 해당되며, 자유로움과 발랄함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서 서구화를 지향하는 터키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 톱카프 궁전

○ 위 치 : 이스탄불

○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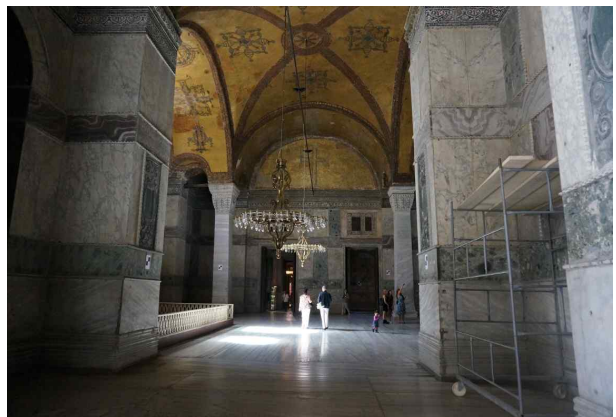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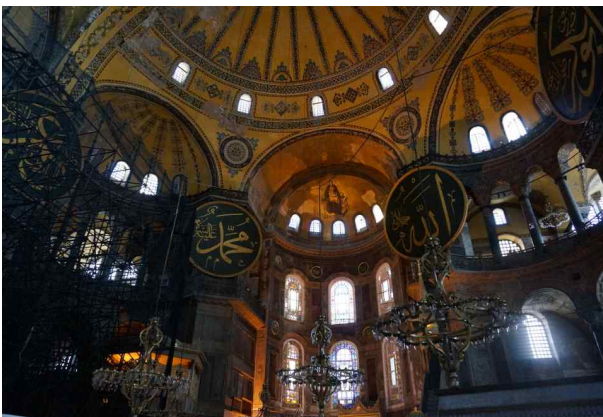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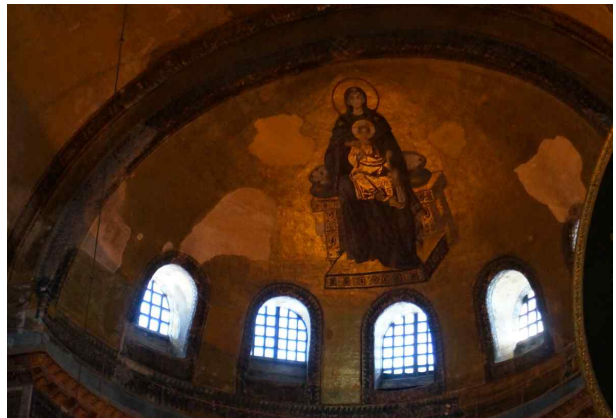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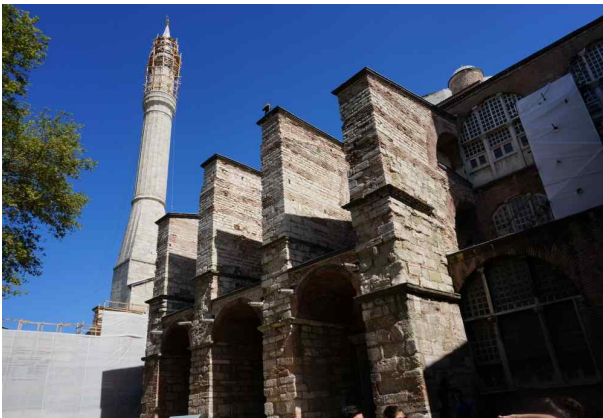
- ▷ 세계 최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거주하던 본 궁전으로 정치, 경제 문화 유통의 모든 면을 관장하던 제국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음.
- ▷ 톱카프 궁전은 일반적인 궁전 건축양식에 비하여 매우 독창적인 스타일로 지어졌다. 유목을 주로 하던 생활양식을 적용하여 둥근 지붕을 중심으로 가운데 아름다운 정원을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게 하였음.
- ▷ 외세의 침략이 없어서 원형 그대로의 궁전을 볼 수 있다.



□ 아야소피아 박물관

- 위치 : 이스탄불
- 특징

- ▷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로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 건물
- ▷ 원래 명칭은 하기아 소피아(Hagia Sophia)로 신성한 예지를 뜻하며, 그리스 정교의 총본산이었다.
- ▷ 로마시대 건립 이후 9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당으로 영광을 누려오던 아야소피아 성당은 오스만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헐릴 위기까지 처하였으나, 건물의 아름다움에 반한 술탄 마흐메트2세에 의해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슬람사원으로 개조되는 운명은 피할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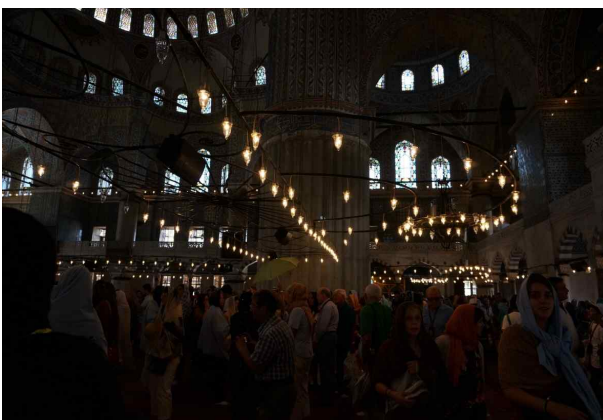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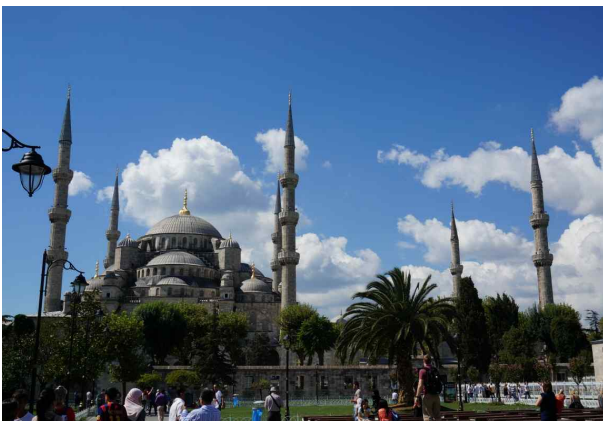


□ 블루모스크 사원(술탄 아흐메트 1세 자미)

○ 위 치 : 이스탄불

○ 특 징

- ▶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미(터키어로 이슬람 사원을 지칭하는 말로 '꿰어 엮드려 경배하는 곳') 중 하나.
- ▶ 오스만 제국14대 술탄인 아흐메트 1세가 지은 건축물로서 4개의 중앙돔을 30개의 작은 돔들이 받치고 있으며, 6개의 첨탑(미나레)이 설치되어 있다. 첨탑의 개수는 권력 상징의 표시였으며, 이슬람의 총 본산인 메카의 첨탑 또한 6개이다.
- ▶ 내부에 260개의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실내를 비추고 있으며, 이즈니크에서 생산된 2만여 장의 푸른색 타일이 창에서 들어오는 빛과 어울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이른바 블루모스크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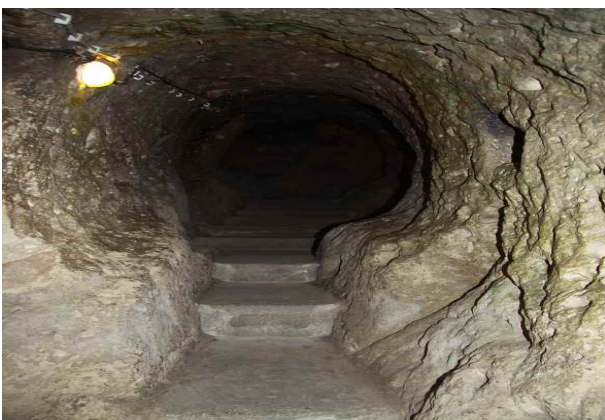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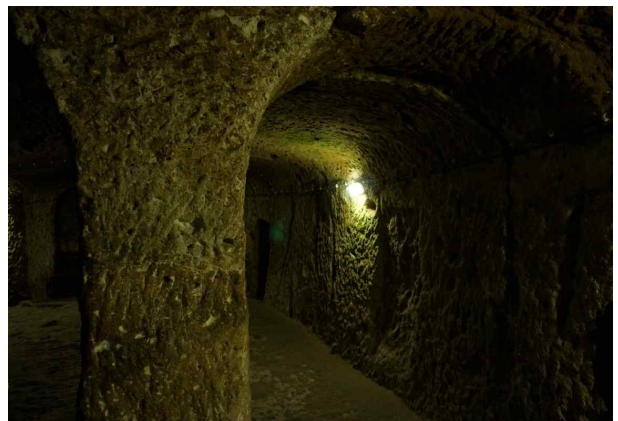


□ 데린구유 지하도시

○ 위 치 : 터키 중부 네브셰히르

○ 특 징

- ▶ 지하도시는 기원전 시대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로마와 비잔틴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되었는데 정확한 개발 동기를 알기 어려우나, 다만 이민족의 침입이나 종교상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추측이 있다. 6세기경 로마와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이곳을 은신처로 삼았던 기독교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 ▶ 지하 85m에 지하 8층, 수용인원 2만명에 달하는 대교모를 자랑한다. 내부에는 부엌, 거실, 교회, 창고 등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대규모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까이 있는 지하도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거대함은 신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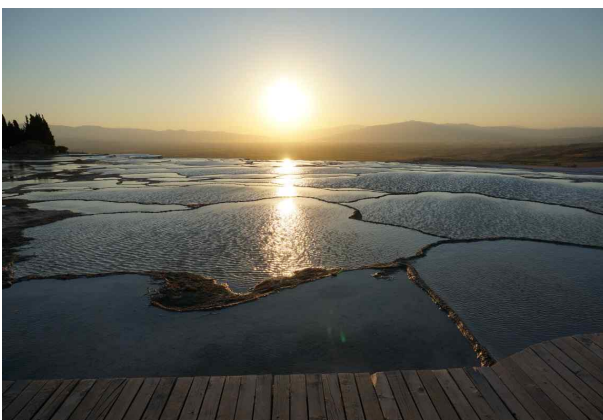


□ 히에라폴리스와 석회층 계곡

○ 위 치 : 파묵칼레

○ 특 징

- ▶ 마을 뒤편의 언덕을 뒤덮고 있는 새하얀 석회층. 석회성분을 품은 지하수가 솟아나와 언덕을 흐르며 생성된 석회언덕으로 학문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회층의 나이는 적게 잡아도 1만4000년 정도라고 함.
- ▶ 석회층의 보호와 지하수의 감소로 출입을 일부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방문객은 맨발로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해질 무렵의 석양은 장엄한 광경을 연출한다.
- ▶ 히에라 폴리스는 기원전 2세기경 페르가몬의 왕 에메네우스가 건설한 도시로 내륙에 설치된 유일한 휴양지로 12세기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한 뒤 파묵칼레(터키어-하얀 목화의 성)로 지명을 바꾸었다.



□ 총평(견학소감)

- 역사 이래로 수많은 왕국이 등장하고 사라졌던 터키, 동서양의 접점으로 수천년간 왕조가 명멸했던 터키 곳곳에는 그리스, 로마시대,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문명 등 인류가 이룩한 역사의 흔적이 산재해 있었다. 아마도 터키의 세계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류문명을 이해하는 지름길인 것 같다.
- 흔히 터키의 90%는 이스탄불 이라고 말한다. 실제 수도는 앙카라이지만, 로마, 비잔틴, 오스만투르크 등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은 그 자체가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았다. 아야소피아 성당과 술탄 아흐메트 1세 자미, 그리고 토크프 궁전으로 대표되는 이스탄불 구시가지의 유적은 갈등과 화합의 인류역사가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아야소피아 성당(박물관)은 술탄 아흐메트 1세 자미는 약 1000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된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결정판으로 두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등장하는 카파도키아(지역의 명칭)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로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암층이 수백 만년의 세월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으로 인하여 형성된 지역으로 기암괴석은 우주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았다.
- 터키! 멀지만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은 나라, 우리나라와 친근함을 가진 나라, 정말 멋진 곳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던 나라이다.